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6월 12일(금)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 첫 출전

-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하며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제시
- ... '르망 24시간' 완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유의미한 성과 달성 위한 여정 나서
- GMR-001에 적용하는 스페셜 리버리 공개...고성능 레이스카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표현
- 마그마 GT 콘셉트 내장 디자인-GT3 콘셉트 최초 공개...브랜드 퍼포먼스 비전 제시
- 제네시스 X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 재공개...한층 강화된 마그마 디자인으로 진화
- "겸손하지만 강한 의지로 도전...레이스 통해 얻은 경험은 차량 개발과 사업 운영에 반영"

제네시스가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제네시스는 프랑스 르망(Le Mans) 라 사르트 서킷에서 현지시간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열리는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24 Heures du Mans, 이하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르망 24시간은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이 주관하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이하 WEC) 시즌 중 가장 핵심 라운드로, 1923년 창설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다.



PRESS RELEASE

우승은 24시간 동안 길이 약 14km의 트랙을 반복해서 돌며 가장 긴 거리를 주행한 팀으로 결정된다. 24시간 내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레이스카 내구력과 드라이버의 체력·집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완주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제네시스의 전담 모터스포츠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은 이번 르망 24시간 출전을 통해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번 르망 24시간 레이스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지만 강한 의지와 목표를 바탕으로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레이스를 통해 얻은 경험은 마그마 퍼포먼스 차량 개발과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고의 차량과 기술,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네시스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 WEC 데뷔 시즌 경쟁력 입증…르망 24시간 완주 및 유의미한 성과 도전

올해 처음으로 WEC에 참가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데뷔 시즌부터 기대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달 벨기에에서 열린 WEC 2라운드 스파-프랑코샹 6시간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며 안정적인 주행과 운영 역량을 빠르게 입증했다.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르망 24시간에서 완주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동시에 유의미한 성과 달성을 위한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는 “르망 24시간은 한국 브랜드 최초로 도전하는 무대이자 제네시스가 글로벌 모터스포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기술 혁신을 위한 시험 무대를 경험하며 일반적인 차량 개발 과정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향후 고성능 양산 모델로 확장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트랙과 e스포츠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GMR-001’ 르망 데뷔 위한 스페셜 리버리 공개…시각적으로 속도감 표현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르망 24시간 데뷔에 참가하는 두 대의 GMR-001 하이퍼카에 적용될 스페셜 리버리(Livery)¹를 지난 1일(월)에 공개했다.

이번 리버리는 지난해 공개된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그마’에서 착안한 색상 구성을 바탕으로, 차량 전면의 마그마 오렌지에서 후면의 짙은 레드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리버리에 적용됐다. 이 그라데이션은 차량 전면부에서 후면부를 따라 이어지며 고성능 레이스카의 속도감과 강한

¹ 도색·스폰서 로고·그래픽 패턴 등 레이스카에 적용되는 고유의 외관 디자인



PRESS RELEASE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차량 측면에는 한글 ‘마그마’ 레터링이 적용되었으며, 전면에서는 레드에서 마그마 오렌지로, 후면에서는 마그마 오렌지에서 레드로 이어지는 대비를 통해 색상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계됐다.

르망 24시간에 출전하는 두 대의 차량(#17, #19)은 동일한 리버리가 적용됐다. #17 차량은 오렌지와 블랙 색상 조합을 중심으로 디자인됐고, #19 차량에는 화이트 로고 및 추가 하이라이트가 적용돼 차량 간 식별성을 확보했다.

리버리 구현에는 프랑스의 필름 제조 업체인 ‘헥시스(HEXIS)’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다. 고속 주행 시 공기 흐름과 열, 이물질 등 극한의 내구 레이스 환경을 고려해 헥시스가 제작한 전용 특수 랩핑 필름이 두 대의 GMR-001 하이퍼카에 부착됐다. 이 필름은 경량성을 유지하면서 색상 표현과 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에 있어 디자인은 중요한 축”이라며 “지난해 선보인 마그마 오렌지 콘셉트 리버리에 대해 팬들이 보여준 뜨거운 반응을 바탕으로, 이번 디자인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리버리는 단순한 레이싱 디자인을 넘어, 제네시스의 퍼포먼스 정체성을 색상과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마그마 GT 콘셉트 내장 디자인·GT3 콘셉트 첫 공개...로드카·모터스포츠 아우르는 브랜드 비전 제시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르망 24시간 현장에서 ‘마그마 GT 콘셉트’ 내장 디자인과 ‘마그마 GT3 콘셉트’를 함께 공개하며 로드카와 모터스포츠를 아우르는 브랜드 퍼포먼스 비전을 제시했다.

제네시스는 이번 르망 24시간 무대에서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였던 마그마 GT 콘셉트 내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인승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로 기획된 해당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퍼포먼스와 감성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했다.

차량 내부는 트윈 콕핏 구조와 드라이버 중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기계식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아날로그 계기와 물리적 조작 요소를 통해 기계적 조작성과 감성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디지털 정보는 절제된 방식으로 통합되어 운전자 집중도를 유지하면서도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그마 GT3 콘셉트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차량은 양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GT3 기술 규정을 반영해 레이스 환경에 최적화할 목적으로 기획된 독자 콘셉트다. 제네시스는 해당 모델을 통해 모터스포츠 및 고성능 영역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공력 성능, 냉각 효율, 열 관리, 내구성 등 경기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를 완성했다.

레이스 환경에 맞춰 설계된 차체 구성과 확장된 전후 트랙은 고속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 프런트 스플리터, 확대된 흡·배기 덕트, 도어 장착형 핀 등 기능 중심의 공력 장치를 적용해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양력을 저감하도록 설계됐다.



PRESS RELEASE

차량 전반에는 공기 유입, 배출, 압력 해소를 위한 구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레이스 조건에서 요구되는 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후면부에는 벤티드 구조와 고정식 리어 윙, 레이스 디퓨저를 적용해 공력 성능을 극대화했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마그마 GT 콘셉트와 마그마 GT3 콘셉트는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퍼포먼스의 방향성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마그마 GT 콘셉트가 도로 위에서의 럭셔리와 역동성을 구현했다면, 마그마 GT3 콘셉트는 이를 레이스 환경에 맞춰 성능과 효율, 목적 지향성을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콘셉트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제네시스 퍼포먼스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제네시스 X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 재공개…에너지와 럭셔리 공존하는 브랜드 감성 제시

제네시스는 르망 시내에서 열린 드라이버 퍼레이드에서 지난해 처음 공개된 ‘제네시스 X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X Gran Convertible Concept)’를 기반으로 진화한 콘셉트 모델 2대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G90를 베이스로 한 아키텍처 스터디에 마그마 디자인을 한층 강화한 형태로, 기존 콘셉트를 보다 강렬하게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재공개된 각각의 제네시스 X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는 소재와 색상, 공간 연출을 통해 레이싱의 에너지와 절제된 럭셔리가 공존하는 브랜드 감성을 제시한다.



PRESS RELEASE

‘리퀴드 티타늄(Liquid Titanium)’ 모델은 마그마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를 바탕으로 레이스 환경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며, ‘미드나잇 티(Midnight Teal)’ 모델은 차분하고 세련된 색감과 타탄 패턴 소재를 통해 보다 여유롭고 우아한 감성을 강조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앰버서더이자 레이싱 어드바이저인 재키 익스(Jacky Ickx)와 리저브 드라이버 제이미 채드윅(Jamie Chadwick)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글로벌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터스포츠 활동과 함께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에 이어 내년에는 폴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덴마크에 진출해 유럽 11개 국가에서 판매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사진 설명>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 첫 출전